



2017 K리그 올스타전이 논란 속에 29일(한국시간) 막을 내렸다.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진행된 축제는 K리그 올스타팀의 예상 밖 패배라는 결과 탓에 많은 비판을 떠안았지만 경기 자체를 떠나 향후 올스타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기도 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하노이 쇼크? 망신은 순간이고 시장은 영원하다

이청용 '운명의 8월'

부상 완전 회복...대표팀 합류 '이상 무' 소속팀 거취, EPL 개막 2경기에 달려



취재파일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K리그 올스타전, 어떻게 봐야 할까

올스타팀, 베트남 U-22 대표팀에 0-1 1시간 손발 맞춘 팀...경기력 기대 무리 해외시장 개척 의의...준비 부족 아쉬움

K리그는 7월 29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했다.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하노이 미딩국립경기장에서 마련된 K리그 올스타팀과 베트남 SEA(동남아시아)게임 대표팀(22세 이하)과의 친선경기에서 0-1로 패했기 때문이다. 전반전 수 윗수에서 10-2로 크게 뒤질 정도로 상대에 압도당했다. 이렇다할 퍼포먼스 없이 마무리 된 90분은 축제가 되지 못했다. '베트남 쇼크'라는 신조어를 남긴 채 씁쓸히 끝났다. 솔직히 우리가 기대했던 마무리는 아니었다.

올 시즌 K리그 클래식(1부리그)을 화려하게 수놓은 조나탄(수원삼성), 데안(FC서울) 등 주요 외국인 선수들이 빠졌으나 내로라하는 토종들이 출격할 한국의 준 국가대표형들이 베트남의 어린 선수들에게 한 수 가르쳐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 경기 전개와 결과가 나왔으니 충격은 더 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이번 올스타전 목표는 확실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초석 다지기였다. 이날 경기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업무협약(MOU)을 맺은 베트남축구협회가 챙기는 대신, 우리 K리그를 널리 알리고자 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꾸준한 성과를 낸 K리그도 얼마든지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상품이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했다. 1차적으로 베트남에 K리그 중계권을 판매하고,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끌어들이 국제적인 투자를 받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더불어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현지 회사들이 K리그 스폰서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런 부분 기대는 아쉬움으로 끝났다. 미딩 국립경기장을 찾은 2만5000여 명 관중 앞에서 오히려 망신을 당했다. K리그의 매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2박 3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체류시간에 쫓겨 선수단은 뭔가 흥미로운 행사를 진행할 수도 없었다. 2회에 걸친 팬 사인회와 축구클리닉 참여 정도도 임팩트를 남기는 건 애초에 무리였다.

그래도 모든 부분을 실패로 포장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과거 우리 대표팀이 브라질과의 친선 A매치에서 한 번 이겼다고 브라질 축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건 아니다. '우리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을 뿐, 브라질을 꺾어내는 건 K리그 올스타팀은 어디까지나 올스타팀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뒤바뀌는 것도 아니다. 1시간(그것도 1차례) 손발을 맞춰 최상의 플레이를 펼치는 팀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흘 뒤에 리그 경기가 있는데 선수들에게 억지로 열심히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 선수들도 아니다. 무기력하게 졌다고 해외시장에 시선을 돌리

려는 K리그의 시도를 억지로 비난할 필요도 없다. 조금이라도 축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K리그 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고, 위태로운 처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새로운 스폰서는 나타나지 않고, 기존 기업들마저 발을 빼려고 한다. 전혀 새로운 시도조차 없이, 초기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올스타전 이상의 활용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

연맹은 앞으로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해외 올스타전을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베트남 투어로 시작해 마무리된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얘기가. 무엇을 해보다 실패하는 것이 실패를 두려워 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다만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연맹의 큰 뜻을 그라운드에서 보여줄 선수단과 코칭스태프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더 좋은 모양을 만드는 그런 공감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든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와 패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스포츠1부 기자



이청용

이청용(29·크리스탈 팰리스)이 본격적인 2017~2018시즌 준비에 나선다.

이청용은 7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다시 진행된 크리스탈 팰리스 폴 트레이닝에 정상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청용의 측근은 "본격적인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간다. 몸 상태도 좋다. 최근 팀의 프리시즌 투어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컨디션 을 끌어올렸다"고 7월 30일 귀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버풀, 레스터시티, 웨스트브롬위치가 참여한 가운데 7월 19일부터 23일 까지 홍콩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트로피 2017'대회에 출전했다. 이후 짧은 휴식을 갖고 지난 주말 2박 3일의 단기일정으로 프랑스에서 리그 양(1부) 소속의 FC메츠와 친선 경기(1-1)를 했다. 이청용은 전류군으로 남았으나 완전히 전력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다.

프랑크 데 부어(네덜란드) 감독이 부상관리 차원에서 런던에 남을 것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이청용은 '아시아 트로피'를 앞두고 훈련을 하다 허벅지 근육이 올라오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물론 큰 부상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없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기 감각이다.

다행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8월 5일 안방 셀허스트파크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샬케04와 공식 연습경기를 갖는다. 데 부어 감독으로선 굳이 무리해 프랑스 원정에 동행시키기 보다는 런던에 남아 2주 앞으로 다가온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준비시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 이청용에게 다가온 8월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이다. 거취도 결정해야 하고, 한국축구의 운명이 걸린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막판 2연전도 소화해야 한다.

8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의 이란과의 홈 9차전에 이어 9월 5일 우즈베키스탄 원정 10차전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한국대표팀은 통산 10회,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단 이청용은 "조급하지 않게 거취를 확정하겠다"는 의지다.

잔류도, 이적도 지금으로선 결정된 것이 없다. 데 부어 감독이 원하면 남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적을 염두에 두고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강한 쪽은 크리스탈 팰리스다. 계약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구단은 연말까지 계약연장을 하지 못하면 이적료를 받을 수 없다.

이청용의 아버지 이장근 씨는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 8월 12일 개막전(허더스필드 홈)~8월 19일 리그 2차전(리버풀 원정)에서 아들을 쓸지 안 쓸지 결정될 것이다. 대표팀 합류에도 전혀 문제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남정현 기자

남의 나라서 K리그 축제...초대받지 못해 뿔난 팬들

말 많고 탈 많았던 K리그 올스타전이 막을 내렸다.

FC서울 황선홍 감독이 지휘한 K리그 올스타팀은 7월 29일(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원정에서 홈팀인 베트남 SEA(동남아시아)게임 대표팀(22세 이하)을 상대해 0-1로 졌다. 결과를 떠나 여러 방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동시에 올스타전이라는 축제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기회이기도 했다.

우선 이번 K리그 올스타전은 장소를 베트남으로 정하면서 반대여론도 많았다. 국내리그 최대의 잔치를 정작 국내 축구팬들이 현장에서 즐기지 못한 아쉬움이 앞섰다. 팬들로서 이유 있는

항변이었다. 올스타전은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사실상 유일한 하루다. 이날만 큰 선수와 팬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긴다. 볼거리 역시 풍부하다.

그간 K리그 올스타전에선 단순히 90분 경기 뿐만 아니라 캐논 대결, 하프라인 이어달리기 등 여러 이벤트들이 더욱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는 팬들이 올스타전을 찾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베트남 원정에선 이와 같이 즐길 거리조차 없어 K리그 팬들은 웃음기 빠진 잔치를 벌여야 했다. 2년 연속 국내 올스타전 무산이라는 점도 아쉬움을 증폭시켰다.

K리그는 2016년 중국 슈퍼리그와 손을 잡고 올스타전 성사단계까지 이르렀지만, 한국과 중국이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 편성되면서 행사를 취소했다. 이번 올스타전마저 해외에서 열리는 바람에 팬들은 2년 내리 별들의 잔치에 동참할 수 없어 허탈감이 컸다.

설상가상으로 K리그 올스타팀이 실망스러운 경기 끝에 패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올스타전 무용론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축제와 경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직 승패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올스타전은 승패보다는 잔치에 방점이 찍히

해외 개최로 국내 팬들 2년째 동참 못해 경기마저 패하며 여론 악화...비난 쇄도

는 무대다. 올해 이벤트가 국제경기 성격을 가졌다고는 하더라도 빠른 일정 속에서 원정을 떠난 선수들에게 반드시 이기고 오라고 강요하고 패배의 잘못을 돌릴 수 없는 이유다.

다만 이번 올스타전에서 쓴맛을 경험한 선수단 역시 느낀 것이 많았을 것이다. '마음가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경기에 미치는 힘을 체감했을 것이다. 의도와 과정이 어떻건 지면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스포츠고 그 화살은 선수들이 받는다. 2018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교훈은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예방주사로 남기를 바란다.

고봉준 기자 shulout@donga.com

조기소집 효과 노리는 신태용의 중국 출장

첫 해외 출장...8월5일 광저우 출국 김영권·황석호 등 중국파 경기 관전

축구국가대표팀 신태용(47) 감독이 부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행선지는 중국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신 감독과 대표팀 김남일(40) 코치가 8월 5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광저우 에버그란데와 헨진 테다의 슈퍼리그 경기를 관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2일 K리그 클래식(1부리그) 24라운드 현장방문에 이어질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중국행 목적은 분명하다. 수비수 점검이다. 광저우에는 오랜 부상에서 회복된 김영권(27)이 있고, 헨진에는 황석호(28)가 몸담고 있다. 둘은 2014브라질월드컵에 출격했던 중앙수비수다. 신 감독과 김코치는 광저우-헨진전 뿐만 아니라 최소 1경기 이상 더 지켜본 뒤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을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는 또 있다. 국가대표팀의 핵심으로 활약할



신태용 감독

좋은 선수들이 여전히 많은 것도 있지만 중국도 K리그와 일점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신 감독은 7월 28일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K리그 CEO 워크숍에 협회 김호준 기술위원장(부회장)과 참석해 K리그 선수들의 대표팀 조기소집 취지를 설명한 뒤 양해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에 따라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막판 2연전(8월 31일 이란 홈~9월 5일 우즈베키스탄 원정)에 나설 대표팀은 이르러면 8월 21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모

여 강화훈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형식이 아닌, 정식 소집훈련이다. 중국축구협회도 자국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판단 하에 8월 21일 소집훈련에 나설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 대표팀도 K리그에 더해 슈퍼리그 선수들까지 함께 손발을 맞추도록 할 수 있다.

다행히 한국-중국전이 열리지 않아 무난한 협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대표팀 스태프는 "최근들어 가장 많이 뿔릴 것으로 보이는 K리그에 중국 슈퍼리그가 가세하면 훈련효과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신 감독이 중국을 첫 번째 해외 출장지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현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